

## 취 임 사

사부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장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전념해 왔던 한 불자의 불모 인생 40년이 종단에 회향되는 뜻 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야단법석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엄한 불사의 과정을 어찌 한마디의 언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수고로움과 정성을 미루어 짐작할 따름입니다.

오늘 여진선원의 개원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겠지만 무엇보다 여진 이진형 관장의 원력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진 이진형 관장은 중요무형문화재 108호인 목조각상 부분을 이수한 분으로 특히, 불상조각장으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여진 이진형 관장은 부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불상을 조성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천진불그리기대회, 문화재 생생사업, 무형문화재 강습회 등 불교미술을 비롯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데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신 분입니다.

여진불교미술관은 6,300여 평의 부지에 미술관, 전시실, 전수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곳곳에는 참배객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정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작품은 그 예술성이 매우 뛰어날뿐 아니라 매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생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이진형 관장이 수행의 일념으로 조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진 이진형 관장은 평소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금 불편한 몸을 가진 이유로 소외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력으로 오늘의 불교미술관을 이루고 그 결실을 환희로움으로 종단에 회향한 장한 분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오늘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3대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공심과 원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심과 원력을 종단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승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종단의 안정과 미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승가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

은 이 지극하고도 당연한 불사를 언제부터인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종단이 공심보다는 사사로움이 대비원력보다는 개인적 보신이 널리 퍼져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 1000일 기도에 입재 중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난 50년의 종단사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 스스로를 살펴 보자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지혜의 증득과 자비의 실천력에 대하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불교, 종단을 이루는 쇄신의 길을 다함께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 길은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평생 소중히 일궈온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종단에 회향한 한 재가불자의 결단은 더욱 큰 감동과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여진불교미술관은 앞으로 여진선원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여진선원은 이진형 관장의 뜻을 오롯이 담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진선원이 천진불의 놀이터가 되고, 지역 사회의 휴식처가 되며, 수행자에게는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종단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여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의 젊은 순례자의 발길이 이 곳 여진선원에 끊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여진선원이 사계절 은은한 향이 울려 퍼지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법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산은 홍엽이요, 가을 들녘의 추수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 하였듯이 여러 불자님들의 수행에 성취가 있기를 바라며,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길 기원합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21일

재단법인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